일 주 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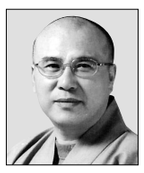
군장병 자장면 위문

정우 조계종 군종특별교구장 스님은 11월 15일 육군2사단 신교대서 훈련병들을 위한 자장면 위문행사를 펼쳤다.



청전 스님 초청법문

지운 성주 자비선사 주지 스님은 12월 3일 오후 1시 경내 대웅전서 '달라이라마 제자 청전 스님 특별법문'을 개최한다.



행복사 자비나눔콘서트

능인 한국불교금강선원 행복사 주지 스님은 11월 26일 오후 3시 강북청소년수련관서 '제1회 행복사 자비나눔콘서트'를 개최한다.



정기총회 · 회장 선거

신외균 조계종 국제포교사회장은 11월 26일 오후 2시 템플스테이 통합정보센터 보현실서 '정기총회 및 회장 · 감사 선거'를 개최한다.



"나라 격랑 속 작은 디딤돌 되길"

대한불교진흥원, 제14회 대원상 시상식

(재)대한불교진흥원(이사장 김규칠)은 11월 11일 서울 마포 다보빌딩 다보원서 제14회 대원상 시상식을 봉행했다. 이 자리엔 대원상 출가부문 포교대상에 선정된 법주사 조실 월서 스님을 비롯해 수상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천호월서희망재단을 운영하며 국제구호사업을 전개하고 있는 월서 스님은 "동남아에서 1달러로 일주일을 지내는 등 안타까운 현장을 접하고 국제구호를 시작하게 됐다. 하지만 상을 받을 만한 일을 한 게 없어 이를 장군죽비 삼아 열심히 하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출가부문 특별상을 수상한 금강 스님은 "템플스테이는 전국 사찰서 다들 열심히 하고 있다. 앞으로 템플스테이를 세계적인 콘텐츠로 발전시키는 데 힘을 실어주라고 상을 준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외에 바른법연구원과 전국병원불자연합회, 녹운회가 재가부문, 오숙진 작가와 불교포커스 팟캐스트 '이미령의 책잡히다'가 콘텐츠부문서 수상했다.

김규칠 이사장은 "우리나라가 격랑에 휩쓸리고 있고 세계 역시 미국 대통령이 바뀌는 등 파도가 출렁이고 있다"며 "이런 혼란 속에서도 넓은 마음으로 끌어안고, 나아갈 방향 등을 생각하는 일에 대원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윤호섭 기자

"여성인재 적재적소 활용하겠다"

Interview

노숙령 제9대 불교여성개발원장

"우리 속담에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표현이 있죠. 불교여성개발원의 여성불자 108인은 각계에서 활동하는 인재들이지만 단순한 신행 · 봉사조직처럼 여겨지곤 합니다. 이런 뛰어난 인재들을 불교발전을 위해 적재적소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최근 제9대 불교여성개발원장에 선임된 노숙령 중앙대 명예교수〈73 · 사진〉는 11월 17일 열린 기자간담회서 앞으로의 포부를 이 같이 밝혔다. 2009년부터 불교여성개발원 이사를 시작으로 2012~2014년 여성불자108인 회장을 맡은 그의 경험이 밴 포부다. 노 원장은 정책 · 교육 · 홍보 · 출판 등 다양한 분야별 사업에 대해 부원장들을 중심으로 한 역할 분담을 계획하고 있다.

노 원장은 "지금까지 부원장에게는 특별한 역할이 주어지지 않았다. 하지만 부원장들이 갖고 있는 인프라가 넓기 때문에 이를 활용해 이사 · 회원들을 이끌며 다채로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한다"면서 "향후 중 · 노년기 여성들이 자부심을 갖고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교육에 이은 일자리 창출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부원장들에 사업 역할 분담
'돌봄교육'으로 일자리 창출
회원 자부심 고취에도 앞장

이는 불교여성개발원이 최근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웰다잉 교육' 등의 전문교육과도 맞닿아 있다. 노 원장은 여기에 중 · 노년기 여성에게 어울리는 '돌봄 교육'을 추가해 방과 후 · 신생아 · 환자돌봄 분야 전문가를 양성할 생각이다. 아울러 개발원 창립 당시 YWCA와 같은 체계적인 여성불자 조직을 구상한 것에 맞춰 회원 자부심 고취와 역량강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노 원장은 "예를 들어 YWCA는 봉사활동 중 벌어지는 사고에 대해 단체가 법적인 해결까지 맡아 회원을 관리한다. 하지만 개발원 회원들은 불교계에서 단순한 봉사자로 취급받곤 한다"며 "심지어 사비를 털어 활동하는 일이 많을 정도다. 자부심을 갖도록 적극 지원하면서 회원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부여해야 건강한 조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노 원장은 또 불교계 발전방향에 대해 "앞으로 불교정수를 어떻게 젊은 사람들에게 전할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며 "대만의 자재공덕회 등 우수한 단체들에게서 배울 점을 찾아 한국에 맞게 적용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노 원장은 숙명여대 식품영양학과 학사, 동 대학원 이학박사를 취득했다. 미국 텍사스 A&M대학 박사 후 과정을 밟고, 전북대 사범대 가정교육과 교수, 중앙대 식품영양학과 교수, 동 대학 가정대학장 · 여학생처장, 대한영양사협회장 등을 역임했다.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열린학문마당 조성에 최선"

최종남 중승대 교수, 불교학연구회장 연임



불교학연구회 제10대 회장에 최종남 중앙승가대 불교학부 교수〈사진〉가 연임됐다.

불교학연구회는 11월 12일 동국대 초허당 세미나실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최종남 9대 회장을 10대 회장으로 추대했다. 임기는 내년 2월 1일부터 2019년 1월 31일까지다.

최종남 회장은 추대 직후 연임사를 통해 "많은 부족함이 있는 저를 정기총회서 10대 불교학연구회장에 연임할 수 있도록 결정해줬다"며 "불교학연구회의 더 많은 학술적 발전과 세계불교학 발전에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정진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인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불교학연구회는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역대 회장, 편집위원, 회원들의 적극적인 학술토론과 논문 투고로 한국불교학계의 중심 역할을 하고 있다"며 "9대에 이어 10대에서도 불교학연구회의 창립 취지에 맞게 열린 모습을 가지고 학문활동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10대 계획으로 학술상과 인문학 논단 등을 제시했다. 최 회장은 "4번의 정기학술대회 및 2번의 하계 · 동계워크숍 외에도 불교학연구와 인접학문과의 발전 및 학술교류 등을 위해 학술상과 각 대학을 방문해 개최하는 인문학논단을 계획하고 있다"며 "제9대에 이어 제10대에서도 회원들의 학술 발표를 독려하고 〈불교학연구〉가 한국불교학계 및 세계불교학계를 대표할 수 있는 학술지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정진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신성민 기자

"D등급 오명, 지혜 모아 극복"

김호중 금강대총동문회 초대회장



"2년간의 대학평가서 금강대는 D+와 D등급을 맞았습니다. 이런 현실에 재학생들은 학교에 대한 자부심을 잃어가고, 상당수 졸업생은 취업난에 발목이 잡혀 있습니다. 금강대는 현재 위기 한복판에 있습니다. 하지만 학교, 종단, 재학생, 졸업생이 함께 지혜를 모아 극복해낼 것입니다."

천태종립 금강대 총동문회가 11월 11일 개교 14년 만에 출범했다. 초대회장은 한국수출입은행서 근무하는 김호중 씨(통상통역중어 05학번 · 31 · 사진)가 호선됐다. 김 회장은 학교 구성원들과 함께 △인적네트워크 형성 △선후배간 화합 △학교발전방향 모색이라는 3대 운영기조를 바탕으로 동문조직을 이끌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김 회장은 지속적으로 졸업생 명단을 확보하고 비상연락망을 구축 · 배포해 동문회원 경조사를 관리하는 한편, 재학생 학업과 복리증진을 돕기 위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김 회장은 "재학생은 곧 미래의 동문이다. 학교가 발전하기 위해선 재학생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과감하면서도 지적인 실천이 뒤따라야 한다"며 "당면 과제를 해결코자 학교와 재학생 사이에서 건설적인 발전방안을 도출해내겠다"고 말했다.

금강대는 총동문회의 평의회와 이사회 참여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회장은 이를 통해 재학생 주요사안을 취합, 학교 측과 논의할 예정이다.

윤호섭 기자

수능합격 소원성취 등불 밝혀

선본사, 11월 16일 갓바위 부처님 전에서



팔공산 선본사(주지 법성)는 11월 16일 갓바위 부처님전에서 대학수학능력시험 합격을 위한 소원성취 등불을 밝혔다. 이날 자녀들을 위해 500여 불자들이 참석했다.

선본사 재무 선지 스님은 "수험생 및 부모들 모두 그동안 수고 많았다. 성심을 다한 만큼 좋은 결과 있길 바란다"며 찹쌀떡과 합격엿을 나눠주고 격려했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불교조계종, 창종 27주년 법회

11월 15일 연세대 동문회관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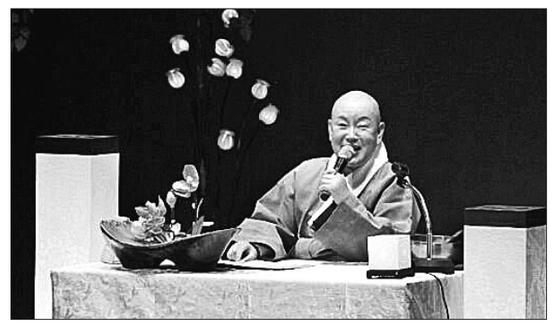


불교조계종(총무원장 혜인)은 11월 15일 연세대 동문회관에서 불교조계종 창종 27주년 기념법회 및 중국남경중의약대학 대통령리더십 최고위과정 교육을 실시했다.

총무원장 혜인 스님은 "요즘 같은 어려운 시대에 모두가 합심해 국난을 헤쳐 나가야 한다. 어려운 시대일수록 모든 사람들의 지혜와 경륜을 모아 새로운 길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윤호섭 기자

작은마음선원 힐링콘서트

11월 11일, '명상수행' 주제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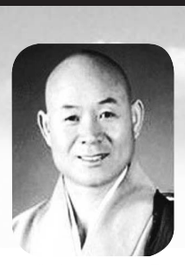
작은마음선원(주지 연우)는 11월 11일 용인문화원 마루홀에서 '2016년 명상수행을 통한 소원 이루는 힐링콘서트'를 개최했다.

이날 콘서트는 총 4부에 걸친 명상강의를 비롯해 문화공연 등이 진행됐으며, 사부대중 250여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이승희 기자

세계에서 침 제일 의과대학, 중국 1위 대학 –

세계 100위 대학 남경대 재경

2017년도 남경 의대(중의학) 학생 모집



혜인스님 한국총장

조기 유학생 모집
어학단기반 모집
- 초 6년 ~ 고3 재학
- 남경사범대학 부속실험학교
www.njsdfc.co.kr

한국 유학생 중국의사 개업 취업 의료행위 할 수 있게 됐다

한국인 중국 의대졸업생 중국정부 중국 의사자격 취득한 외국인 개업 의사활동 허용한다고 중국정부는 발표했다.

❶ 특차모집(남경중의학대학)

학 과	학 제	모집인원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
한의학과	5년	100명	• 최종학력증명 1부 • 최종성적증명 1부 • 입학신청서 1부 • 여권용사진 10부
석사과정	3년	50명	
박사과정	3년	10명	
재경대학	4년	80명	• 법학,경제,경영,무역,식품,금융 등

❷ 지원자격
- 고등학교 졸업 및 동등이상 학력자
- 주지스님 추천자

❸ 학교소개
- 세계침구 1위 명문 국립 한의과대학
- WTO국제 전통의학 협력센터
- 부속병원3,제약공장,교육병원12,제약연구소 등 완비
- 중국어 어학원 및 유학생전용 기숙사
- 군입대 연기 가능
- 현재 생활관리 담당교사 상주하여 학사 관리
- 학자금 대출 가능
- 서울시내 대학 편입 가능
- **중국내 개업 의사 가능**

❹ 전형방법 및 모집기간
- 전형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

※모집기간 : 2016년 11월 30일까지 수시전형

❺ 지원서 교부 및 접수
- 교부 : 한국 사무처 – 홈페이지에서 다운받거나, 불교조계종 교학과에서 직접 교부 (지방은 우편으로 배부 가능) www.njutcm.co.kr
- 접수 : 불교조계종 한국분교(빠른 접수 가능) 서울시 강남구 도산대로 6길 8(논현동 2-13 2층)
- 제출서류 특별전형 : 최종학력증명 및 성적증명서 각 1통
- 기 타 어학연수 및 조기유학에 관한 문의는 불교조계종 국제교류처(02-511-1080)으로 문의 바람.

❻ 학비(등록비 및 보험료 포함)
- 학사 과정 : 매년 25,800위안
- 석사 과정 : 매년 33,800위안
- 박사 과정 : 매년 41,800위안

■ 남경중의약대학(南京中醫藥大學)
南京市仙林大道138號(210023)
138 Xianlin Rd., Nanjing 210023, P.R.China
E-mail : overseas@njucm.edu.cn
Website : www.njucm.edu.cn

■ 한국상담처 : 불교조계종 총무원교육부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 6길 8
- 교학처 : (02)511-2026, 2027 Fax (02)511-2028
- 총장실 : (02)511-1080

http://www.njutcm.co.kr